



제3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인쇄산업발전은 디지털기술활용으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월간 인쇄계가 주최하고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인쇄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가 지난 6월 21일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개최됐다.

인쇄산업에 접목,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사업방향과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인쇄산업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란 주제 아래 20분간의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5가지 분야별 강연이 이뤄졌다.

5가지 분야별 강연 및 질의응답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3회를 맞는 국제인쇄기술 컨퍼런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 세계 인쇄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한마당으로서 국내 인쇄업계의 대표 행사로 발돋움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인쇄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

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인쇄업계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업계의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 업계가 처한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하이텔베르그 강성민 차장의 'JDF를 이용한 워크플로 통합', 만로랜드 박덕호 이사의 '차세대 로랜드 700 다이렉트드라이브를 통한 고객의 효율성 극대화', 성도GL & 솔루션 박병호 부장의 '디지털 워크플로', 고모리코퍼레이션 나카지마 시즈오의 '디지털화 시대에 대한 고모리의 제안', 아그파 권순기 이사의 '아그파의 신기술 써모 퓨즈' 등의 순으로 5가지 분야별 강연이 진행됐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G